

마이크로펫쉬

—도서관 자료 정리의 혁신—

譯者註

本記事는 멀지 않아 國內에 밀어닥칠 Microfiche 時代에 대처하여 그 개략적 윤곽만이라도 파악하므로써, 도서관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그날, 一寸의 도움이라도 資코자 한 것이다. 原文은 USIS FEATURE (D-4/71-F-52)에 의한 것임을 밝혀 둔다.

최근 미국의 도서관계와 출판업계에 새로운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microfilm과 그 부산물인 microfiche가 바로 그것이다.

7×12cm카드 몇장으로 도서관 전체의 모든 자료를 축소시켜서 보관할 수 있게 되었는데, 보통 크기의 책 여섯권이 이 카드 한장에 복사될 수 있다. 이 microfiche라는 것은 축소비율 49:1인 microfilm을 변형시킨 것으로서 microfiche 중에서도 "Super fiche" 또는 "Ultra microfiche"라고 불리는 것은 50:1, 100:1의 축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몇해 전 National Cash Register Company에서는 microfiche 기술을 이용하여 5×5 cm film에 King James판 신구약 성서 1,245 p를 수록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성경을 일반에게 전시킨 일이 있었다. 동회사는 5년이내로 5만권에 달하는 microfiche를 갖추어 놓으려고 하고 있다.

축소기술은 일반에게 대출이 불가능한 귀중본과 高價書를 利用者들에게 널리 利用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예를 들면 18 C말에 Paris에서 출판된 全70卷의 볼테르의 著作이 책값보다 더 싸게 film화되어 利用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Microfiche의 利用上 편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자료의 보관장소(space)를 대폭적으로 줄여준다는 것이다. Microfiche를 使用할 때 차지하는 space는 실제 모든 자료의 원형이 차지하는 space의 3%에 해당하는 space로서 충분하다. 예를 들면 사전류를 취급하는 브리타니카회사가 미국 문화도서관(Library of American Civilization)에 적은 부피의 microfiche

를 납품하는데, 이 microfiche에 해당하는 실제 도서의 부피는 6백만 page와 2만 volumes에 해당되는 거대한 것이지만 적은 microfiche 몇장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 도서관이 일반도서를 보관하는데 필요한 서가길이는 650 m이지만 microfiche로 변조하여 보관할 경우 불과 40 cm길이의 카드 32개 즉, 1 m 28 cm의 공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둘째, 비용면에서 큰 절약이 된다. 본래의 책값이 45만불이 든다면(미국문화도서관의 경우) microfiche화할 경우 2만1천불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셋째, 종래에는 film 한 roll에 수백 가지의 서로 다른 분야의 자료를 같이 수록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microfiche의 경우는 분야별로 따로 수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할 때 무척 편리한 것이다.

Microfiche는 자료의 보관이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한 종래의 모든 불편을 덜어주는 빠르고도 값싼 방법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쇄기관인 미국정부인쇄청(U.S. Government Printing Office)이 내린 평가는 다음과 같다. "2\$짜리 200 page의 책 한권을 microfiche화 하자면 microfiche 단 한장과 소요경비 10 cent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미국 인쇄청은 여기에 대한 공문서를 microfiche로 만들어 1,200개 도서관에 무료 제공하므로써 microfiche 권장에 앞장섰다.

실제 이용면에 있어서 microfiche를 읽기 위해서는 글자를 확대시켜주는 "Reader"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몇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등사기(printer)인데 이 등사기는 자료를 확대시켜서 복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0 초에 불과하지만 판권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판권 문제만 해결되면 사서들에 의해 주문되는 도서는 적은 경비와 간단한 절차로 정리될 수 있으며 3만 5천 원에 해당하는 책이 microfilm 한 roll에 수록될 수가 있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에서 microfilm을 처음 사용한 곳은, 지금도 미국 국민 전부에 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리위원회(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였다. 1947년 microfilm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연간 3천만 가지의 문서가 film화 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도 1964년 이후부터는 여러 개의 산하기관에 microfilm과 microfiche로 된 공문을 사용하기도 했다. 멀지않아 행정부의 모든 문서가 film과 fiche化 되어 사용될 것으로 본다.

한 정부고위관리는 microfiche에 대해서 "그것을 표준화 시키는 방법 문제만 남았다"면서 fiche와 superfiche 그리고 ultrafiche 사용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